

태양광, 남향보다 서향이 더 유리

PS리서치, 전력 생산량 2% 많아 ... 피크타임 의존도도 65% 불과

세계 태양광 전지판(패널)이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지구 북반구에서는 태양열 패널이 낮 시간에 태양에 가장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에는 남향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.

그러나 Pecan Street Research Institute 과학자들은 서향 태양광 패널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.

서향 태양광 패널이 남향에 비해 하루 전력 생산량이 2%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.

서향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구는 남향 설치 가구에 비해 해가 지는 오후에 전기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가장 비싼 오후 3-7시 피크타임에 외부 전기 의존도를 65%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남향의 의존도는 54% 수준이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1/21>